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24	01. 31	02. 07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장용환 형제	정용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표를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Markus Jo(22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51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행 3 : 1 - 10 (신p191) 황희순 집사
(Apostelgeschichte 3:1~10)
- 설 교 Predigt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54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비판하지 않는 눈!

우리 인생은 염려가 아니면 비판입니다. 약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구역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Charles Swindoll 목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큐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약한 자와 순전한 마음을 가지 자의 하나님이 되길 좋아하신다. - John Piper(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